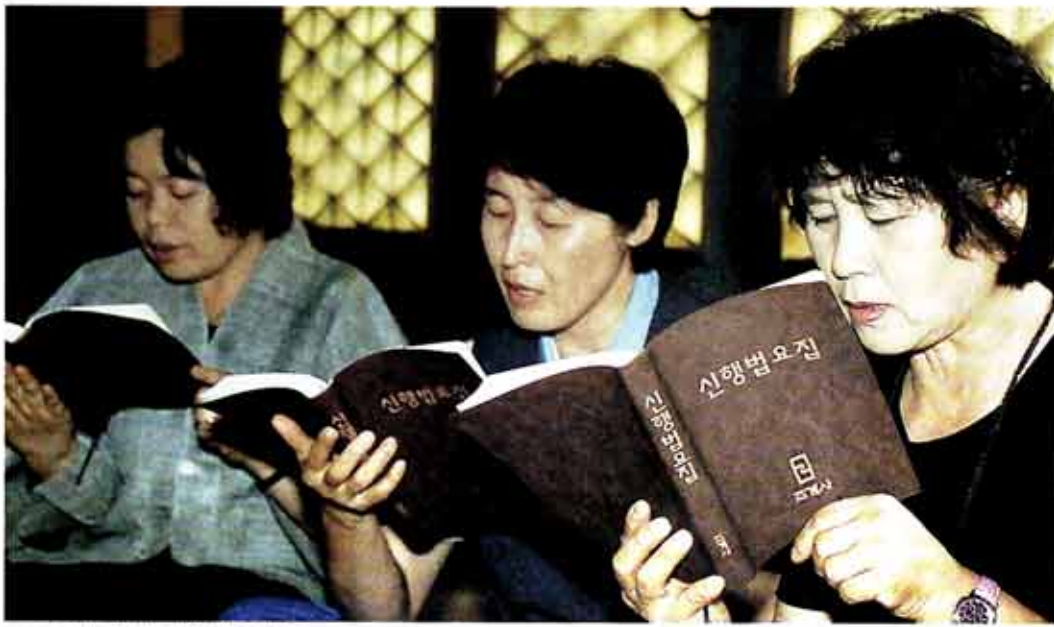


## “새 표정으로 대중에 더 가까이” 종단·사찰·신행단체 심벌마크 도입 활발



◇조계사는 기와와 교자 모양을 이미지화 한 심벌마크를 문서와 봉투, 사보와 현수막, 신행법요집 등 곳곳에 활용하고 있다. 사진=고영대 기자

### 조계종 '중단 상징' 아직 없어

우리의 언어와 생활, 역사와 문화 속에는 불교의 이미지가 숨어있고 있다.

“불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연꽃에서부터, 관자, 법륜, 코끼리, 사자, 구름, 땅, 바람 등 자연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불교 이미지들은 너무나 많다.

최근 종단을 비롯해 개별 사찰, 신행단체, 복지시설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이미지를 도입해 자신들을 대표하는 상징(symbol)으로 활용하는 예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교계의 움직임은 그림이나 글자형태로 표현되는 기업들의 이미지 통합(CI: corporate identity)작업과 비교할 수 있다. 기업들이 무한 경쟁사회에서 해당 기업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브랜드 마케팅하여 이윤 창출로 연결시키고 있다면, 교계 단체들은 불교 가르침을 응축한 대표 이미지로 포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심벌을 도입한 것이다.

불교 대표 이미지를 통해 가장 널리 일반에 알려진 불교 단체는 말고항기롭게 이다.

연꽃 문양을 응용, 맑고 향기로운 부처님의 자비 가르침이 널리 퍼져나가기로 발원하는 의미를 담은 심벌로 불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인식의 폭을 넓혀 큰 호응을 얻었다.

90년대 중반이후 교계 단체를 중심으로 대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대한불교 진흥원, 고려대장경연구소 등이 심벌 마크를 제작해 사용해 오고 있다. 또 조계사가 심벌 마크와 로고를 사용하고 있으며, 진각종이 2000년 4월 불교종단 가운데서는 최초로 심벌 마크와 로고를 정해 종무행정과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가 법륜도양의 심벌 마크를 차량에 부착하고 달리는 포교사의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한국조계공사 경산 조계정 불자회는 법륜에 얽힌 모양을 이미지화한 심벌을 사용하고 있다. 또 교정인물자회도 법륜 속 무궁화 위에 입을 맞춘 두 마리 물고기 그리 넣은 심벌을, 영불만일회도 대표 이미지를 이용해 홈페이지까지 구축해 놓았다. 또 최근에는 복지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주장애인복지관이 로고와 심벌을 제작하기도 하는 등 그 활용 범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심벌들은 문서, 현수막, 신분증, 차량, 간판, 신도카드, 배지, 직인명찰 등 다양하게 활용되어, 사찰과 단체 회원의 소속감 일체감을 강화하고, 타 종단 및 종교와의 차별성을 드러내며 불교의 선진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불교 대표상징물 개발 시급

그러나 지금까지 선반인 대부분의 심벌들이 소재적인 측면에서 관자, 연꽃, 법륜, 심보 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인지도 면에서도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선도해 왔던 불교의 위상에 걸맞은 상징물들의 현대적 응용과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불교 대표 종단인 조계종조차 종단의 상징을 아직까지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98년 종단 이미지 표준화 사업을 발표했지만, 잇따른 종단 사태 등으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던 캐릭터 아기부처님과 동자승이 호응을 받으며 제등행렬 등의 행사에서 활용되어 왔던 것과 비교할 때, 이미지 표준화 사업이 뒤처져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 이미지 통일작업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업이든 국가, 일반 단체에서 기용하는 노력은 상상할 수 없다. 상품의 품질보다는 노력이 가는 상표로 경쟁력이 평가되는 경우를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불교를 대표하는 상징물의 개발이 절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지가 곧 경쟁력이다. 새로운 표정으로 대중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불교의 전통적 이미지들을 상징화하는 작업이야말로 오늘의 불교를 내일로 이어주는 중요한 가교라 할 것이다.

이은자 기자 ees@buddhapa.com

연꽃·관자·법륜·코끼리 등 다양

진각종 상징 심벌로 이미지 쇄신

문서·신분증·포스터 등 다방면 활용



◇고려대장경연구소



◇조계사



◇경주 장대인복지관



◇맑고 향기롭게



◇진각종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안양지역회 유경순 회장(앞)이 신인회원 차량에 법륜 심벌마크를 부착해 주고 있다.



### 현대사회의 '이미지=경쟁력'

포교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직장 직능별 신행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표이미지를 제작 활용하는 곳이 적지 않다.

### “시각포교는 새로운 도전 미래지향 이미지 담아야”

고현 조선대 디자인대학원장

대표 이미지를 통해 불교를 보여주는 시각포교는, 새로운 도전이다.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세 없이는 이러한 도전은 이루어 질 수 없다. 불교계의 이미지 개발과 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각포교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아직도 일부 스님들과 불자들이 디자인 작업의 어려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주상보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절집인의 전반적인 분위



기가 전문가 집단을 신뢰하지 않고, 전통문화에만 집착하는 것도 현대예술훈 분야의 시각 디자인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인 양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불교는 양적·질적면에서 다양한 문화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불교의 대표이미지를 생산하는 일 또한 무궁무진할 수 밖에 없다. 연꽃, 구름, 십이지신상이 하나의 모양이지만, 디자인의 측면에서 새롭게 바라보면 광안사천의 부처님 법문만큼이나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

##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와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은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